

■ 음악으로 제 2의 인생 '광주 은빛 하모니 악단'



'광주 은빛 하모니 악단'. 왼쪽부터 이춘신, 노상익, 조정희, 김형주, 김두정, 노형수, 윤자옥, 조경희, 류화영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실버 라운지

김용민



최근 고령화의 정도가 가속화되면서 5번째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노인재가센터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직접 또는 파견되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둘째,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폭언, 폭행, 그리고 성추행 등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대상자나 가족을 진정시키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가의 경우 2인1조 또는 3인1조로 조를 편성하여 위와 같은 위험에서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 체계적 관리와 교육을”

위하여 기존의 시설과 신규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요양보호사의 교육과 양성은 요양보호교육기관이 지난 2월에 선정되어 처음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양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지침의 규정이나 교재편찬을 하고 있으나 보편적용 시 실현현장에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현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와 업무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스스로가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 적당한 휴식과 운동, 균형잡힌 식사나 충분한 숙면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는 요양보호사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가센터 및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신변안전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요양보호사는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대인관계 없이 혼자서 일하거나, 병약한 노인·치매 등의 질환자 또는 요양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으로 힘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선진국에 못지않게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사회복지기관, 요양보호사, 서비스 대상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 <승원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혼신 다해 연주하면 세월도 비켜가요”

“나이 들면 외로움이 가장 큰 고통이지만 악기와 함께하는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악기를 통해 봉사를 실천하고 새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70대 초반 멤버 10명 양로원·복지관 등 돌며 음악 봉사

자옥(64·가수), 김형주(62·색소폰), 노상익(63·색소폰), 장성수(63·아코디언), 조경희(56·가수), 이춘신(59·아코디언), 류화영(55·가수)씨 등 10명의 멤버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음악으로 소외된 이웃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자는 데 뜻을 같이해 지난해 5월 악단을 꾸린 뒤 연주인생을 함께하고 있다. 그동안 양로원, 장애인 복지관 등지에서 수차례 무료 공연을 통해 '음악천사'라는 별명도 얻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

5일 오후 동신대사회복지관 지하 1층. 50대 후반부터 70대 초반의 노인들이 아코디언, 색소폰, 전자 기타, 전자 오르간을 능숙하게 연주하고 있었다.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히도록 혼신을 다해 연주하는 '고향무정', '울고넘는 박달재' 등 레퍼토리는 예사 트로트 가요를 넘어 목직향 원숙미가 묻어나고 있다.

한편, 선율을 빚어내는 주인공들은 '광주 은빛 하모니 악단'. 조정희(70·전자 오르간), 김두정(67·전자 기타), 노형수(67·가수), 윤자옥(64·가수), 김형주(62·색소폰), 노상익(63·색소폰), 장성수(63·아코디언), 조경희(56·가수), 이춘신(59·아코디언), 류화영(55·가수)씨 등 10명의 멤버로 구성돼 있다.

지역축제 공연 요청 쇄도

악단을 이끌고 있는 노상의 총무는 “지난해 장여우 시설에서 연주할 때 몸이 불편한 이들이 스스로없이 우리들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웠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은퇴 후 악기를 접한 비전문자 출신. 그러나 전문 음악인 못지 않은 수준 높은 음악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축제가 줄을 잇는 여름철부터 가을까지는 공연 요청을 사양해야 할 정도. 나이 때문에 매일 연습은 할 수 없지만 일주일에 두 차례 12시간 가량을 집중 투자한 덕분이다.

그러나 연주 역량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남다른 아픔도 있었다. 한 지자체로부터 공연요청을 받았는데 공연비용을 저렴(?)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아마추어' 공연단으로

오해를 받아 공연이 취소된 적도 있다고 한다. 수준이 낮은 악단이기에 연주비용을 적게 요구한다는 터무니 없는 평가절하를 당한 것이다.

공연 차량 없어 어려움

모두 체력이나 정열은 타고 났지만 세월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연 때마다 1시간 가량 무거운 아코디언을 연주하던 이계승(76)씨는 체력이 달려 중도 하차하기도 했다.

'광주 은빛 하모니 악단'은 자신들의 목표인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공연 이동용 차

량을 확보하는 게 올해 소망이라고 한다. 악기를 싣고 이동할 차량이 없기 때문에 상업적인 공연 무대에 설 때는 차량을 임대하기 위해 소정의 공연비용을 받는다고 한다. 이 돈을 조금씩 모아 소외된 곳을 찾는 비용으로 충당한다.

노 총무는 “광주는 물론 전남 지역 노년원과 장여우 시설을 매일 찾고 싶어도 이동할 차량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뜻 있는 공공기관에서 공연차량 만이라도 제공해준다면 마음껏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공연문의 010-9527-2742.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노인 일자리 1만764개 창출 '전국 최다'

지난해 3월~12월, 사업비 163억원 투입

전남도가 올해 전국 최다 규모인 1만여 개의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3일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성과지향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3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1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만764차례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사업은 1일 3~4시간, 1주일에 3~4일 근무하며 보수는 1인당 월 20만~30만원 가량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유형별로는 공익형 사업의 경우 4천900명(46%)의 일자리를 마련해 자연 환경보호, 교통질서, 주차 계도, 산불 예방, 문화재 보호 사업 등을 한다.

복지형 사업은 3천183개(30%)의 일자리를 마련해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지원 사업, 소외계층 지원 사업, 문화·복지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한다.

교육형 사업은 1천188개(11%)의 일자리를 마련해 노-노 교육강사 파견 사업, 취미활동, 체육활동, 문화재 및 숲 생태

해설 등의 사업을 노인, 학생,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노인일자리 참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체 노동이 가능하면 누구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정된 선발 기준에 의해 선발된다.

박기열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 일자리사업은 노인 복지증진과 경륜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 된 것”이라며 “단순 반복 사업은 가능한 지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성과지향적 일자리 창출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정기자 chae@kwangju.co.kr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롭고 공인중개사.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 개강 3월 3일. 합격.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2008년 국비지원 훈련생 모집. [모집기간 : 3월 31일까지]. 과정: 전자정보Technician (다기능기술자), Office automation (사무자동화).

7·9급 공무원. 정직중 강화 (합격회원 모집). 정규이론A반, 개강 3월 3일, 문제풀이반.

개원 40주년기념 2월 3월반 특별이벤트. 공인중개사 수강료 전액무료. 합격률 전국 1위의 유명강사진이 합격을 예약합니다!! 40년 전통의 합격신화!! 전남고시학원 236-2467~8 (전남여고 건너편)

현대직업전문학교. 1. 만 15세이상~65세 미만 (주부, 가계업자, 알바생, 고령보호자) 2. 자활관련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3. 2008년 2월 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 야간대학교 및 방송대학교 재학생.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급 공무원 합격대특강. 개강 4월 1일. 9급 문제풀이반 (1개월원생) 9급 이론 수반 (2개월원생) 전직중 첫진도. 한빛공무원학원